

## 선악과인가? 생명과인가? (4)

이 정엽 목사  
(뉴비전교회 / 214-534-7141)

생명나무의 열매를 취하는 신앙생활은 하나님께 내가 무엇을 자꾸 해드림으로 나를 자랑하고 스스로 만족해하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을 누리는 삶이다. 때때로 신자나 교회 가운데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께 잘 보이기 위해서 쉬지 않고 자꾸만 일을 만들어 내는 일에 중독되어 있는 모습을 본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 일보다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그분을 먼저 누리고 있는가 살펴보라는 것이다.

나는 하나님을 누리고 있는가?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설렘과 기쁨과 기대와 영광으로 충만한 우리가 되고 있는가?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충만케 하시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신 것이 아닌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 그분의 사랑과 인자하심과 긍휼하심과 자비하심과 용서하심과 품으시는 사랑이 충만한 교회와 성도가 되고 있는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의로우심과 영광이 충만하여 예배당에 들어서는 자마다 죄를 회개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뵈는 두려움과 떨림의 경외와 진실함과 경건함이 있는 교회와 성도가 되고 있는가?

끝으로 생명나무에 속한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넘쳐나는 삶이다. 참되고 영원한 생명나무는 영생이시며 죽은 자도 살리시며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이시다. 이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넘쳐날 때 우리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다. 죽은 자를 살리는 것만큼 가치있고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야말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살리는 생명의 역사를 가져오는 기쁜 소식이다.

그런데 우리는 사람들의 만족과 인기와 칭찬을 듣기 위하여 일시적인 생명을 주는 삶을 살지 말고, 영원한 복된 생명, 영생을 줄 수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취하고 나누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사람들의 판단과 그들이 만든 선악의 기준과 법이 아니라, 엄위하신 하나님의 판단과 우리의 행위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진정으로 생명을 주고, 사람들을 살리는 일인지 판단하며 행동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인간의 판단과 결정은 변할 수 있고 잘못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법은 시대와 나라와 사람들의 찬반과 상관없이 공평하고 의롭고 변치 않기 때문이다. 그 하나님의 법을 어기며 사람들이 산출한 선악과가 사람들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것임을 인류 역사가 증명해오지 않았는가! 하나님이 세우신 선악의 기준이 아닌 사람들이 만든 선악의 기준에 따라 거기서 맺는 열매들이 과연 사람들을 진정으로 살리는 생명의 열매가 될 수 있겠는가?

못된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좋은 나무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법이다. 생명나무이신 예수님께 속한 자들이 되지 않고서는 생명의 열매, 아름답고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먹으면 죽는 독이 가득한 썩은 열매를 아무리 걸만 무지개 색깔로 아름답게 장식한들 그것이 얼마나 가졌으며 참 맛과 생명을 줄 수 있겠는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마 7:19)고 예수님께서서는 경고하신다.

이 땅에서 판단하고 결정한 대법원의 판결이 최종적인 것이 아니다, 그것을 재심하실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의 심판대가 우리가 반드시 서야 될 최후의 심판대이다.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의 행위대로 심판하심을 잊지 말고 생명나무에 속해 생명의 열매를 맺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이다. 나는 어떤 나무에 속해 있는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속해 나도 죽고 남들도 죽이는 열매를 맺으며 나누고 있는가? 아니면 생명나무에 속해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충만한 열매를 맺으며 나누고 있는가? 이 양자 택일의 질문에 당신은 어떻게 답변하며 살겠는가?